



3·1절 전국마라톤

가족·동료 함께 '화합의 질주'

5km는 가족·동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걷기 도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기록보다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화합의 코스다.

화합의 코스답게 축구·야구·특공무술이 함께 봄을 달렸다. 남부대 축구팀·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화순특공무술팀이 반바지가 아닌 유니폼과 도복차림으로 달려 눈길을 끌었다.

축구·특공무술팀 등 유니폼 차림 눈길
새 각오 다지며 기록보다 어울림 만끽

남부대 축구팀·화순특공무술팀·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이 5km 완주를 한 뒤 올 한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송기경기자 song@kwangju.co.kr

파란 유니폼 차림으로 5km를 쾌속 질주한 남부대 축구팀은 두 번째 시즌을 앞둔 신생팀, 지난 대회를 통해 첫 시즌의 각오를 다쳤던 이들은 올해도 3·1 마라톤을 힘찬 출발을 익히는 무대로 선택했다.

주장 김성민은 "축구가 많이 뛰는 운동이라서 마라톤이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축구는 순간순간의

희열이 있지만 마라톤은 자신과 싸우며 달려야 해 어렵다"면서도 "각자 능력에 맞게 부담없이 달렸다. 운동외에 다른 활동을 할 틈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 마라톤을 통해 새 각오를 다진 만큼 시즌 U리그 월중왕전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러브를 내려놓고 출발선에 선 꼬마선수들도 있다. 그라운드를 누비며 체력을 다지고 야구 실력을 키우고 있는 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 선수들은 지난 3·1절에 이어 올해도 그라운드 대신 트랙을 뛰었다.

"야구보다 달리는 게 더 힘들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참가 선수들 전원 씩씩하게 달려 완주를 했다. 너구한 몸매의 포수 박성현이 가장 늦게 경기장에 들어오자 미리 와있던 동료들은 다시 일어나 함께 결승선까지 달려 큰 박수를 받았다.

3·1 마라톤 단골손님 화순특공무술설악 관수련생들도 변함없이 광주나들이에 나섰다. 이들은 특공무술시범도 하는 가장 바쁜 손님이기도 하다.

신경화 사범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면서 승부욕도 생기고 즐겁다. 특공무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예외와 예절인데 아이들이 동생들을 행거가면서 달린다. 자신의 체력도 점검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3·1절은 즐거운 날이다"고 말했다.

이날 조강현 광주아마추어복싱연맹 이사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영성군과 5km를 달리며 화합의 질주에 동참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쿠웨이트 칠~

지난 29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쿠웨이트와 경기에서 이동국이 첫 골을 넣은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조별 최종순위

★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 확정국

수위	승	무	패	골득실	승점
★ 1	5	0	1	+10	15
★ 2	4	0	2	+4	12
3	3	0	3	+4	9
4	0	0	6	-18	0

B조

★ 1	4	1	1	+10	13
★ 2	3	1	2	-4	10
3	2	2	2	-1	8
4	1	0	5	-5	3

C조

★ 1	5	1	0	+7	16
★ 2	3	1	2	+11	10
3	2	1	3	-1	7
4	0	1	5	-17	1

D조

★ 1	5	0	1	+8	15
★ 2	2	2	2	-3	8
3	1	3	2	-1	6
4	1	1	4	-4	4

E조

★ 1	3	3	0	+12	12
★ 2	2	4	0	+5	10
3	2	3	1	+6	9
4	0	0	6	-23	0

/연합뉴스

자료/FIFA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
한국 톱시드 받을까

쿠웨이트 2:0 격파

최강희(호)가 쿠웨이트의 거센 반격을 잡아 우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 최종전에서 이동국(전북)과 이근호(울산)의 연속골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B조 1위를 확정한 한국은 레바논과 함께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최종 예선에는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3차 예선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10개 팀이 출전해 6월부터 1년 동안 열린다.

요르단·이라크(A조), 한국·레바논(B조), 우즈베키스탄·일본(C조), 호주·오만(D조), 이란·카타르(E조) 등 총 10개국이 3차 예선 통과를 확정했다.

최종 예선에선 다섯 팀씩, 두 조로 나뉘어 험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8경기씩 치른다. 각 조 상위 두 팀, 총 네 팀은 본선에 직행한다.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진출권은 4.5장이기 때

문에 각 조 3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에 도전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 승자는 내년 9월 남미 예선 5위 팀과 대결 간 플레이오프를 다시 치르는 험난한 길을 가야 한다.

최종 예선 조 추첨은 3월 9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다.

그동안 최종 예선 조 추첨은 직접 월드컵 성적을 토대로 10개 팀의 순위를 매긴 뒤 시드를 배정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대회부터는 조 추첨 직전인 3월 7일 발표되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 맞춰 시드를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월 현재 한국의 FIFA 랭킹은 34위(714점)로 호주(22위·832점), 일본(30위·762점)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여서 그동안 받아왔던 톱시드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3차 예선 최종전에서 한국이 쿠웨이트를 2-0으로 패했다. 이 때문에 3월 랭킹에서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성이 커졌다.

톱시드를 받으면 최종 예선 1차전을 험에서 시작하지만 2번 시드로 밀리면 원정 경기로 최종 예선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8강 향한 첫 날갯짓

K리그 내일 상주시민공원서 상무와 시즌 첫 경기

8강에 도전하는 광주 FC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된다.

광주 FC가 4일 오후 3시 상주시민공원에서 상무 상무를 상대로 2012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K리그 데뷔와 함께 시·도민구 단장단 최다승(9승·11위)을 거뒀던 광주는 올 시즌 8강 진입을 목표로 내걸고 개막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막강해진 화력이 그리운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문데네그로 윌리엄 대표팀 출신 공격수이

자 K리그 최장신 복이(201cm)를 영입하면서 박기동과 이승기, 김동섭, 주양파울로 등으로 이어지는 막강 공격라인이 구성됐다. 장신군단의 위엄이 더해지면서 제2공권도 업그레이드 됐다.

K리그에서 잔뼈가 굽은 슈바(186cm)

도 신입 공격수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

다. 광주와 상무의 개막전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꼽힌다. 강화된 공격 자원을 앞세운 광주에 비해 상주는 수비가 튼튼하다.

김재성, 김형일, 김치우, 최효진까지 무려

4명(풀기피 제외)이 최강희호에 이름을 올

렸다.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을 비롯해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최종전 쿠웨이트전 연승으로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했다.

광주는 조직력으로 상주의 방패를 낚았다는 계획이다. 국군체육부대라는 특성상 시즌을 앞두고 팀원의 절반 정도가 바뀌었고 박항서 감독도 부임한 지 이제 3달밖에 되지 않았다.

광주 최만희 감독은 "상주 상무는 국내 최고의 실력과 미드필드진과 수비진을 갖춘 팀"이라며 "지난 시즌 상주 상무의 골문을 한 번도 뚫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강화된 공격력을 앞세워 신나게 두드려 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전 9시 30분 광주FC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광주FC 8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훈련을 3월 3일(토) 오